

행정학 학술논문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박 치 성**·김 경 훈***

〈目 次〉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함의

〈요 약〉

본 논문은 행정학 학술 논문의 소비에 있어 논문의 질 이외에 체계적으로 논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며, 어떠한 소비패턴을 나타내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학 논문들이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식사회학의 논의에 따른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두 가지 좋은 소식과 한 가지 나쁜 소식이 발견되었다. 좋은 소식으로는 첫째, 행정학자들은 행정학의 주요관심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문적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행정학에 있어 지배적인 관점인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관련 연구논문들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읽고(조회하고),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학자들은 논문저자의 사회적 배경보다는 저자가 그간 쌓아온 학문적 성과에 따라 읽거나 인용할 논문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논문저자의 사회적 특성인 학부, 박사수여교, 현재소속 등의 변수는 행정학 논문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자의 학문적 명망을 나타내는 충실적은 논문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쁜 소식으로는 여성학자가 생산한 논문이 남성의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게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학술논문의 소비, 지식사회학, 저자의 사회적·학문적 명망】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조교수(csp7111@gmail.com)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kkkhhssl_2@hanmail.net)

논문접수일(2009.7.7), 수정일(2009.8.11), 게재확정일(2009.8.17)

I. 서 론

정부 정책결정자들은 당면한 국가의 정책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기존의 학술연구들을 소비하며¹⁾ 행정학 연구자는 학문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학자들이 이미 실행한 연구를 참조하여 자신의 연구를 진행시킨다. 학자들에게 논문의 출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Collins(1975, Diesing, 1991 재인용: 163)에 따르면, 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는 것이며, 자신들도 다른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논의에 다른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문 출간의 목적은 첫째, 다른 학자로부터의 인용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와 연구방법론(research design)에 대한 독점권(proprietorship)을 주장하기 위함이며, 둘째, 다양한 청중과 독자들에게 연구결과를 알리는 것이다(Diesing, 1991: 200).

우리나라의 행정학 전문 학술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5개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10개의 등재후보지, 그리고 등재되지 않는 학술지를 포함하여 적어도 30-40여개의 행정학 전문 학술지가 존재한다. 즉 어림잡아 계산을 하여도 1년에 천여 편의 논문이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임도빈, 2008).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사회과학 학술저널들이 지금까지 독자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논문 기고자들의 경력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Cole, 1995).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들의 다량 출판과 이에 따른 학문적 의사소통의 저하는 지식사회 아노미의 직접적인 징후(sign)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Hagstrom, 1965, Diesing, 1991: 156 재인용). 즉 학자들 간 학문적 의사소통에 있어 논문의 출간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출간된 논문이 소비되는(즉 다른 학자에게 읽히고, 인용되는) 측면 역시 중요한 것이다. 미국행정학계에서도 행정학 학술논문들의 생산보다는 소비측면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나오고 있다. Streib와 Christine(2005)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행정학계에서도 행정학회 회원(학자)들의 필요에 의한, 즉 회원들의 수요가 있는 학술논문들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고, 동시에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행정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홍식, 2006: 596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학 관련 논문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행정학 학문공동체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기

1) 일반적으로 행정학 학술연구결과가 정부 정책결정에 활용되는 정도가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오철호, 2008: 9). 그러나 김재훈(2008)의 연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5급 이상 공무원 중 행정연구결과를 읽고 이를 활용하는 공무원의 비중이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학문적 가치가 높은 논문이 학문공동체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식사회학의 논의에 따르면 논문의 소비가 논문의 질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논문의 질을 제외한 다른 어떤 변수들이 행정학 논문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대상으로 우리나라 행정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에 기고된 논문들을 사용하였으며, 논문들의 소비패턴을 지식사회학의 논의에 바탕을 두어 1) 정부의 주요 관심사 및 주요활동, 2) 저자의 사회적 영향력, 3) 저자의 성별이 행정학 논문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행정학 연구의 조류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향연구, 인용분석, 기고자 분석 등이 있다(박홍식, 2006 :595). 이 중 한국에서 주로 이루어진 분석은 연구 경향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권경득, 1996; 박홍식, 2006; 배웅환, 2000; 신무섭, 1997).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결과물인 논문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학연구의 논문 수, 논문의 주제, 논문의 저자 속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를 이용하여 탐색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행정학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급자의 측면에 한정하여 행정학 학술활동을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연구들로서 행정학의 사회수요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박순애, 2007; 박치성, 2008; 임도빈, 1998). 이러한 연구들은 행정학연구가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 또는 시대적 적실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사회적 수요에 따른 새로운 연구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 역시 행정학 연구자들의 사회적 특성이 행정학 학술연구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행정학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있다(한인숙, 2008; 오철호, 2008; 김재훈, 2008; 송희준, 2008). 이러한 연구들은 지식활용(knowledge utilization)의 측면에서 어떻게 연구자의 이론적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상황에 이용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서 기산출된 연구결과의 실제 정책과정에서 활용정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행정학 학술 활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장, 단점을 결합하여, 행정학의 수요측면, 구체적으로 행정학 연구의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

에 시대적 상황의 행정학 연구 소비에 대한 영향, 행정학 연구자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행정학 논문들의 소비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제시

학술연구 활동 중 소비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분야는 지식사회학(science of sociology)이다²⁾.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학 학술연구들이 행정학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주요 담론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한 학자들의 사회적 특성이 학술활동 결과물인 학술논문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논의를 한다.

1) 행정학 지식과 사회적 관점(perspective)과의 관계

지식사회학의 선구자인 Manheim에 따르면 인간이 생산한 지식이란 인간이 배태되어 있는(embedded) 사회라는 구조와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생성된 실체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어이데올로기라는 존재(ontology)를 인식론적(epistemology)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Coser, 1977). 따라서 특수한 집단의 지식(본 연구에서는 행정학 연구자 집단)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회구조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처한 사회적 상황에 제약된다.

이러한 지식사회학의 전통은 Diesing과 같은 사회과학 철학자의 논의에서 잘 나타난다. 즉 외부주의자 사회학(externalist sociology)에 따르면, 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특정한 위치(social location)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사회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사회과학자들의 학문적 아이디어에 영향을 끼친다(Diesing, 1991: 164). 예를 들면 같은 사회과학자라 할지라도 선거에 대하여 개인적인 유권자의 입장(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voters)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과 후보자의 조언자의 시각(the perspective of candidate's adviser)에서 선거에 관련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자의 학문적 관심은 개인적 특성, 교육 등을 포함하여, 무엇보다도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지배적인 관점(prominent perspective)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Keynes, Merton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맹위를 떨친 것은 당시 미국정부의 자유주의적 성

2) 본 연구에서의 행정학 지식 소비(consumption)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학 지식활용(knowledge utilization)의 일부분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본 연구대상이 아니다. 즉 지식활용연구에서 제시하는 실무자(정책결정자)들이 학술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아닌, 행정학 학술 연구자 공동체에서 학술연구자들의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행정학 연구결과의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논의를 한정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이론적 틀로서 본 연구는 지식사회학의 논의를 제시한다.

격·복지확대, 완전고용, 후식민지국가들에 대한 지원 같은 정책들·에 기인한 것이다(Diesing, 1991: 170).

다른 분야의 사회과학 학문들과 비교하여 행정학자들은 정부와 파트너십을 가지는 전문적 학자집단이기 때문에 특정시기 정부의 주요 관심사 및 주요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 IMF이후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정부개혁의 가장 큰 두 가지 갈래로는 신공공관리와 (신)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이종수외, 2008). 이러한 두 가지 정부개혁에 있어 주요관점은 실제 정부개혁 노력으로 표출되었다. 즉 김대중정부는 40억원, 노무현정부는 60억원의 예산을 정부개혁 또는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에 쏟아부으며(임도빈, 2007: 89) 계속적인 정부개혁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신공공관리는 투입보다는 산출을 중심으로 한, 즉 성과에 따른 책임을 통한 효율성 중대로 정부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McCoy, 1992). 이러한 신공공관리는 IMF이후 정부관료제의 비효율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홍준형, 1999; 임도빈, 2000; 이재은, 2003 재인용), 정부실패를 신공공관리론에 의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이명석, 2001: 205). 그러나 한국의 행정개혁과정에 있어 신공공관리론의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김선명, 2005) 거버넌스의 논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의 행정개혁을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게 되었다(이명석, 2001). 즉 사회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정부관리보다는 협력에 의한 정부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정부의 경우 정부개혁 추진과정에서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의 시각을 동시에 진행하여 조직 개혁의 시각을 마련하였다(강신택, 2008: 309).

또한 본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 바로 전에 해당하는 민선이후 시기(1995-2001)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학의 주제별 연구경향을 분석한 주상현(2002)의 연구는 지방 및 도시행정분야에서 높은 연구 증가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행정학이 정부가 주요관심사항으로서 추진하는 연구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8년 동안(1999년-2006년) 한국정부(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정부운영에 있어 주요 관심사 내지 정부개혁의 주요과제였던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가 행정학에 있어서 얼마만큼 학문적 영향 끼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특정시기에 있어 정부의 주요관심사 및 활동이 행정학 연구 및 논문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2) 행정학 지식의 평가와 소비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논의

행정학 연구의 산물인 학술논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학술적 연구의 성과물인 학술논문은 연구자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지식재(knowledge good)라 할 수 있다(박치성·고길곤, 2009). 지식재는 자신이 소비하지 않고는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하기 전에 그 지식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고려하게 된다. 즉 자신이 소비하기 전에 지식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의 논의를 빌리면 동료들이 특정 지식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은 지식재의 가치 및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Shapiro & Varian, 2000). 그러나 동료들 역시 특정 지식재를 소비하기 전에는 그 가치를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논문이 발간된 초기에는 특정 논문에 대한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둘째, 학술적 연구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지식사회학에서는 연구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인 원칙(universalistic principle)-논문의 질만이 학자의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판단근거-이 있는가, 아니면 저자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연구성과가 평가되는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다.

이러한 지식사회학의 논의는 Merton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여왔다.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 Merton(1968)은 Manheim으로부터 시작된 지식사회학의 전통에 따라 사회적 특성이 학자들의 지식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Merton은 이를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 명명하였다³⁾. 즉 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자산인 논문에 대한 소유권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여러 명의 저자가 논문을 공저하였을 경우 저자들 중 가장 저명한 저자가 논문에 대한 기여도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평판(credit)을 받게 된다는 것이 마태효과이다(Merton, 1968). 이는 학자들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비판한 이론으로서, 저자의 사회적 명망(social eminence)이 연구결과의 소비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Merton에 따르면 논문의 기여도 또는 논문의 질과 상관없는 명성(credit)의 잘못된 배분(misallocation)이 연구자에게는 위해가 될 수 있으나, 때로는 과학적 의사소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Cole, 1992).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태효과는 학문사회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머튼학파(Mertonian)에게 이는 극복의 대상이었다.

즉 마태효과에 의해 학자들이 이미 사회적 명망이 높은 학자의 논문을 더욱 많이 소비(인용)함으로써 이미 지위가 높은 학자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이는

3) 마태효과라는 용어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는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나온 것이다.

그 학자가 더 많은 연구지원금 등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논문의 순환구조로 표현된다. 즉 논문출간을 위해서는 연구(research)가 필요하며,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지원금(research grant)이 요구되고, 연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논문(publication)이 필요한 것이다(Latour & Woolgar, 1979: 201, Diesing, 1991 재인용; 198). 일단 학문공동체에서 명망 높은 학자로 인식이 되면 그들은 이와 같은 논문의 순환구조에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마태효과는 학문공동체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이미 자신의 입지를 구축한 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는 다른 학문적 성과에 대한 논문을 거부(reject)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려하기 때문이다(Diesing, 1991: 195-197). 이와 같이 Merton을 위시한 머튼학파는 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마태효과가 지식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정함으로써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머튼학파는 초기 Merton이 제기한 마태효과가 틀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함으로써(Cole, 1992)⁴⁾, Manheim이 주장하였던 지식사회학의 기본 주제인 사회적 요소들과 과학적 지식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식사회학의 논의에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김경만, 1994).

따라서 Merton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사회학자들은 연구논문을 평가하는 제도화된 가치체계로서 보편주의(universalism), 공동주의(communism), 공평주의(disinterestedness), 조직화된 회의주의(organized skepticism), 그리고 윤리적 중립성(ethical neutrality)을 제시하였다(Diesing, 1991). 특히 Cole과 Cole(1973)의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원칙에 의하여 지식사회에서 학자들의 연구성과가 평가된다고 주장하였다(Cole, 2004: 839 재인용). 이러한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 제도화된 가치들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상체계와 더불어 연구자들의 지식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머튼학파에 따르면 공유되는 가치를 근간으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읽고, 상호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연구논문이 공평무사하며, 공동주의적이라는 것을 상호확인한다(Diesing, 1991).

이에 따라 머튼학파는 연구자들의 집단적 겸종과 평가가 해당 연구자의 국적, 인종, 성별과 관계가 없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여 왔다(김경만, 1994: 134).

4) 연구논문의 논문 초기인지도(초기인용횟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자가 발표한 모든 논문의 인용횟수(논문을 작성한 저자의 명망)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논문의 초기인용에 있어서 명망이 높은 학자의 논문과 명망이 높지 않은 학자의 논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구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특성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작은 효과만을 미쳤다는 실증분석결과가 있다(Cole, 1992). 이에 따라 Cole은 저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논문자체의 내용이 논문의 소비에 있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머튼학파의 반대편에 있는 외부주의자 사회학(externalist sociology)은 과학적 지식평가에 있어 저자의 사회적 특성의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을 하였다. 즉 연구자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 주의자(constructivist)들은 지식재가 평가되는 데 있어 저자의 사회적 특성, 즉 누가 논문을 작성하였는가와 어디서 논문이 작성되었는가 등이 학술논문의 소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Knorr-Cetina, 1981, Diesing, 1991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행정학 지식재인 행정학 학술논문의 소비가 어떠한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있어 능력 또는 역량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요인이 아닌 학별주의(김동훈, 2001), 지역주의(이종오, 2000) 등의 요인이 많이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행정학 학술논문에 대한 소비 역시 이러한 효과, 즉 연구자의 사회적 특성이 연구성과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논문 저자의 명망이 저자의 출신학교, 현재소속기관 등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명망과 과거연구실적 등을 나타내는 학문적 명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정학 지식재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한다⁵⁾.

가설2. 저자의 사회적·학문적 명망이 행정학 논문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성별에 따른 논문소비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가를 검증한다. 여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과 차별은 성별도식을 형성시키고 사람들에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상이한 기대를 갖게 만든다(김정숙·김경근, 2003: 25).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학문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여성 박사들에 대한 평가를 더욱 더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성들의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과소평가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O'Leavy & Mitchell, 1990; West & Lyon, 1995; 김정숙·김경근, 2003: 31 재인용). 이러한 차별적인 효과는 마틸다 효과(Matilda effect: Rossiter, 1993)로 나타난다. 즉 과학적 지식생산에 있어 같은 역할내지 비슷한 업적을 산출하였을지라도 연구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것이 행정학 지식재 소비에 있어서도 유효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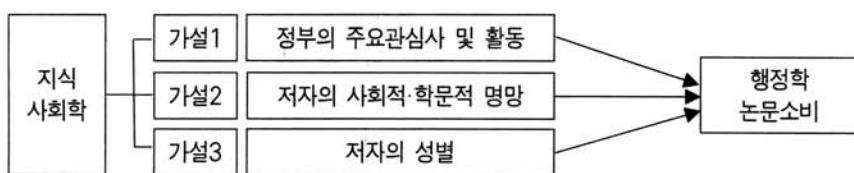
5) 가설2는 한국 행정학 논문의 소비에 있어 논문자체의 질이 아닌 다른 변수, 즉 논문저자의 사회적, 학문적 명망이 논문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지, Merton이 제시한 마태효과 자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연구자의 성별을 변수로 변수로 사용하여 다음의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3. 저자의 성별이 행정학 논문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 제시된 이론 및 가설은 아래의 분석틀로 정리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III. 연구설계

1.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행정학 학술지 중에서 가장 저명한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지난 8년간(1999-2006)의 논문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한다⁶⁾. 따라서 분석단위(level of analysis)는 논문이며 분석대상 논문의 총수는 550개이다⁷⁾.

2. 측정

1) 종속변수: 행정학 논문의 소비

Merton에 따르면 학자들은 학문적 연구의 보상을 무엇보다도 동료들로부터의 사회적 인정의 양으로 측정한다(Cole, 2004; 김경만, 1994). 이러한 측면에서 동료 학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행정학 지식인 논문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였는가는 동료들로부터의 사회적 인정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측정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 행정학 논문의 소비는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6) 본 연구의 두 가지 종속변수 자료의 가득성 때문에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한국행정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전자논문에 대한 조회수 정보가 1999년도부터 제공되기 때문이며, 둘째, 이미 게재된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2007년부터는 초기인용지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2006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7) 서평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술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소비형태로서 다른 동료들에게 자신의 논문이 읽히는 것이 행정학 논문의 소비가 될 수 있다. 둘째, 조금 더 구체적인 소비형태로서, 동료들의 학술논문에 자신의 논문이 인용되는 것이다. 인용이 많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 논문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Garfield, 1979; 이가종·윤석경, 1996: 100 재인용). 또한 Cole을 비롯한 머튼학파는 논문의 인용횟수를 주로 이용하여 지식의 소비를 분석하였다(Cole, 1992). 본 연구는 이상의 두 가지 측면의 행정학 학술논문의 소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

첫째, 동료들에게 읽히는 것을 측정하는 척도로 본 연구는 행정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행정학 논문 조회수를 이용하였다. 실제로 종이에 활자화된 행정학회보의 논문이 몇 번이 읽혔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논문이 읽혔다는 모든 횟수를 나타내는 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또는 적게 읽혔다는 패턴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수집 가능한 대리변수로서 인터넷상의 논문조회수를 측정변수로 이용하였다. 자료는 행정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학술논문검색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발행된 학술논문들(총 550개)의 2009년 4월 13일 현재 조회수를 수집하였다.

둘째, 논문의 인용횟수는 논문의 질에 대한 간접측정으로서, 논문이 출간되고 난 후 특정 기간 동안 다른 행정학 학술지에 몇 번이나 인용되었는가를 측정한다. 여기서 특정기간은 초기 인용 횟수, 즉 논문이 발표된 후 2년 이내의 행정학 주요저널에서 인용된 횟수(Cole, 1992)와 분석대상의 논문이 발간된 이후의 모든 시기(1999-2009년 현재)동안 인용된 횟수 두 가지를 모두 측정한다. 논문의 소비가 저자의 사회적 특성에 의해 영향받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기인용 횟수가 전체인용횟수보다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논문이 발간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저자의 사회적 명망이 아닌 논문자체의 질에 의해 소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논문을 인용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자신의 연구와 유사한 기존연구에서 인용되었던 참고문헌을 확인하는 것인데(김홍렬, 2005), 이는 다른 동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 검증된 논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논문 발간 후 인용되고 나서 다시 인용되기 까지는 시간상으로 적어도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요약하면 세 개의 종속변수 중 조회수는 상대적으로 양적 소비의 측면을 많이 나타내는 반면 총인용수는 질적 소비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내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인용횟수 측정을 위한 대상 논문집으로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중 행정학 관련 주요 저널인 한국행정학보, 정책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행정논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정부학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

국행정논집 등 9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네 가지-논문의 성격(학문영역), 논문저자들의 사회적 명망, 논문저자들의 학문적 명망, 성별-로 나눠진다. 첫째, 논문의 성격에 관한 변수이다. 즉 논문을 연구영역에 따라 신공공관리 관련 연구(1), 거버넌스 관련 연구(2), 그리고 나머지 연구주제(0)로 측정한다. 이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코딩하였다⁸⁾.

둘째, 논문저자들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세 개의 변수들이다⁹⁾¹⁰⁾. 지식재의 소비는 지식재 자체의 질을 떠나서 특정 지식재를 생산한 생산자의 사회적인 특징 또는 권위, 그리고 지식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회적 과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Cole, 1992). 또한 행정학 학술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소비하는데 있어 연구결과의 원천, 즉 누가 연구했느냐라는 것이 행정학자들의 연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이다(오철호, 2008). 이와 같이 저명한(prestigious) 연구기관에 속해있는 저자의 논문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socially advantaged)을 받는다는 기존 논의(Blisset, 1972, Diesing, 1991: 160 재인용; Cole, 1992: 137)에 따라 본 연구는 저자의 사회적 소속(affiliation)을 세 가지로 나누어 측정한다. 이는 1) 저자의 출신학교, 2) 현재소속 기관에서의 지위, 3) 현재 소속기관이다.

출신학교의 점수화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김용학외, 2007: 90)에서 사용하였던 방법을 적용하였다. 박사학위 수여 학교의 2008 QS 사회과학 계열 세계 대학교 순위(http://www.topuniversities.com/worlduniversityrankings/results/2008/subject_rankings/social_sciences/)를 이용하였다¹¹⁾. 즉 1-50등까지는 6점, 51-100등까지는

8) 내용분석 코딩을 위해서 기존연구(이종수외, 2008: 160; 박치성, 2008: 11)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이용하였다. 즉 신공공관리(행정개혁)로 코딩하기 위한 키워드로는 시장 및 경쟁, 민영화, 민간위탁, 결과중심, 정부조직의 효율화, 정부의 고객서비스 향상을 사용하였고, 거버넌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부-민간 협력네트워크(기업-정부-사회단체 협력), 비영리기관의 역할/관리,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전반적 거버넌스를 사용하였다. 행정개혁에 있어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일지라도 다른 이론틀(예를 들어 신제도주의)을 이용한 논문인 경우에는 기타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문분야 분류 내용분석은 총 4회 실시하였다.

9) 본 연구는 한국이 분석대상이기 때문에 공동저자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 저자의 정보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10) 저자에 관련된 자료는 학술진흥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연구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5점, 100등부터는 각 100등 당 점수를 1점씩 감소하였다. 300등 밖에 속하는 외국대학에는 2점, 그 외의 국내대학에는 1점을 부여하였다. 학부 출신학교의 경우 중앙일보(2008년 9월 29일자)에서 발표한 2008 대학평가 종합순위를 이용하여, 1-5등까지는 5점, 6-10등까지는 4점, 11등부터 20등까지는 3점, 21등-30등까지는 2점, 순위 밖의 대학은 1점을 부여하였다¹²⁾.

현재의 지위의 점수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작화를 실시하였다. 전임교수 중 그 지위가 확고해진 정교수와 명예교수는 4점,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3점, 그리고 연구원, 강사, 겸임교수 등은 2점을 부여하였고 학생의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였다.

현재소속기관의 점수화는 학부출신학교에서 이용한 중앙일보 대학평가순위를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국책연구원일 경우, 대학내 연구소일 경우, 그리고 기타¹³⁾를 더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는 1점, 대학내 연구소 소속일 경우는 2점, 국책연구원일 경우는 3점, 대학순위 30등 밖인 경우는 4점, 21-30등까지는 5점, 11-20등까지는 6점, 6-10등까지는 7점, 그리고 1-5등까지는 8점을 부여하였다.

셋째, 지식재는 소비하기 전에는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대리 변수로서 논문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학술적 명망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논문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학술적 명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를 과거의 연구성과를 이용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연구자의 과거 연구성과는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사용되었다(김용학외, 2007). 예를 들어 Cole(1992)의 NSF 연구에서는 과거에 많은 연구성과를 산출하였던 연구자의 논문(Cole의 연구에서는 proposal)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과거 연구성과와 연구결과물 수준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궁근·김태일, 2003). 본 연구는 연구자의 지난 10년간(1998년-2007년)의 연구성과를 점수화하였다¹⁴⁾. 이상의

11) 김용학외(2007)의 연구에서는 상해교통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500대 대학 순위를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사회과학에 국한된 연구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의 명성이 높은 대학순위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QS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12) 외국대학에서 학부를 나온 경우 세계대학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과의 순위비교를 통하여 점수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5점을 부여하였다.

13) 기타에 포함되는 것은 정부기관(공무원), 사기업, 의회소속 전문위원,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시간강사, 그리고 대학원생 등이 포함되었다.

14)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사용하였다. 즉 학진 등재지 및 후보지 저술은 1점, SSCI(SCI) 저술은 2점을 부여하였고,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즉 2인 공저인 경우에는 0.7, 3인 공저인 경우에는 0.5, 4인 공저인 경우에는 0.3, 그리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0.25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들에 대하여 공동저자의 경우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즉 저자의 출신학교 점수, 현재소속 점수, 현재지위 점수, 연구성과 등은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넷째, 마틸다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을 측정하였다. 여성이 저자인 경우 0으로, 남성이 저자인 경우에는 1로 측정하였다. 공저자가 남성과 여성이 섞여있는 경우, 마틸다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저자가 모두 여성인 경우에만 여성으로 측정하였다.

IV. 분석결과

1. 분석 변수들의 기술통계적 특성

분석결과는 앞에서 제시된 세 개의 가설의 순서에 따라 제시된다. 이를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조회수	550	5	2643	966.29	312.018
	최근2년 인용수	550	0	14	1.99	2.388
	총인용수	550	0	39	5.00	6.026
독립 변수	학부점수	502	1.0	5.0	3.588	1.4333
	최종학위대점수	545	1.0	6.0	3.512	1.8265
	직위점수	545	1.5	4.0	3.185	.6652
	현재소속기관점수	550	1.0	8.0	4.048	1.7105
	성별	540	0	1		
유효수 (목록별)		492				

550개 논문에 대한 조회수 평균은 966번이며, 가장 많이 조회된 논문은 2643번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정학보의 논문들은 발간된 지 2년 내에 평균적으로 약 2번 정도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4번으로 인용에 있어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문들은 조사된 기간 동안 평균 5번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점수의 경우 평균 3.6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학보에 게재하는 행정학자들은 평균적으로 명망있는 학부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위점수는 평균 3.2로서, 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들은 평균적으로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조회수	최근인용수	총인용수	학부	최종학위 대학	직위	현재소속기관	총실적
조회수	상관계수	1	.330**	.364**	.068	.010	.101*	.014	-.020
	유의확률		.000	.000	.128	.825	.019	.735	.646
	N	550	550	550	502	545	545	550	550
최근2년 인용수	상관계수	.330**	1	.768**	-.057	.002	.113**	.052	.130**
	유의확률	.000		.000	.199	.954	.008	.224	.002
	N	550	550	550	502	545	545	550	550
총인용수	상관계수	.364**	.768**	1	-.068	-.034	.192**	.054	.194**
	유의확률	.000	.000		.126	.432	.000	.203	.000
	N	550	550	550	502	545	545	550	550
학부점수	상관계수	.068	-.057	-.068	1	.302**	.197**	.366**	.014
	유의확률	.128	.199	.126		.000	.000	.000	.755
	N	502	502	502	502	502	500	502	502
최종학위 점수	상관계수	.010	.002	-.034	.302**	1	.147**	.340**	.143**
	유의확률	.825	.954	.432	.000		.001	.000	.001
	N	545	545	545	502	545	542	545	545
직위점수	상관계수	.101*	.113**	.192**	.197**	.147**	1	.489**	.253**
	유의확률	.019	.008	.000	.000	.001		.000	.000
	N	545	545	545	500	542	545	545	545
현재소속 기관점수	상관계수	.014	.052	.054	.366**	.340**	.489**	1	.264**
	유의확률	.735	.224	.203	.000	.000	.000		.000
	N	550	550	550	502	545	545	550	550
총실적	상관계수	-.020	.130**	.194**	.014	.143**	.253**	.264**	1
	유의확률	.646	.002	.000	.755	.001	.000	.000	
	N	550	550	550	502	545	545	550	550

주: **p<0.01, *p<0.05

상관관계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첫째, 세 개의 논문 소비 관련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가지 인용수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0.768)를 보인다. 즉 초기에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 계속 많은 인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라는 기준이론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현재소속기관 점수와 직위점수, 학부점수, 최종학위 대 점수, 그리고 최종학위 수여 대학점수와 학부출신 점수간의 상관관계 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망있는 학부출신의 학자가 명망이 높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확률이 높으며, 또한 명망있는 학부와 대학원을 나온 학자가 상대적으로 더 명망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영역별 학술 논문의 소비패턴 분석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행정학 학문공동체는 특정시기 정부의 주요관심사 및 활동에 관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학문적 소비가 높다”의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1999년 – 2006년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비중

	빈도 (건수)	퍼센트
기타	467	84.9
신공공관리	48	8.9
거버넌스	35	6.4
합계	550	100.0

첫째, 1999년-2006년간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총 550건의 논문 중 신공공관리 관련된 주제를 논의한 논문은 48건(8.9%), 거버넌스를 다룬 논문은 35건(6.4%)이고¹⁵⁾ 이외의 주제를 다룬 논문은 467건(84.9%)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의 측면, 즉 피인용에 있어서는 다른 패턴을 나타낸다.

〈표 4〉 1999년 – 2006년 학문영역별 논문 피인용비교 (단위: 건수)

	전체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기타
인용된 논문	454(82.6%)	45(93.5%)	34(97.2%)	375(80.3%)
피인용이 없는 논문	96(17.4%)	3(6.5%)	1(2.8%)	92(19.7%)
총계	550(100%)	48(100%)	35(200%)	467(100%)

거버넌스 관련 논문의 경우 논문발간 후 최근 2년 동안 인용이 한 번도 안 된 논문은 5건(11.4%), 총인용수의 경우에는 1건(2.8%)에 그치고 있으며, 신공공관리 관련 논문의 경우 각각 6건(13%), 3건(6.5%)만이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논문의 경우 각 166건(35.5%)과 92건(19.7%)이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소비에 있어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ANOVA) 및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첫째,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15) 이 둘을 합하면 총 15.1%로, 한국행정학 50년 간(1956-2005년까지의 시기) 학술연구 발표의 주제별 분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지방행정 분야(11.2%)나 일반행정(11.1%)과 비교하여(박홍식, 2006: 603), 본 논문의 연구대상기간(1999-2006)에서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주제가 적어도 낮은 비중으로 연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원분산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조회수	기타	467	927.01	272.515	12.611	5	2258
	신공공관리	48	1238.33	451.826	65.216	571	2643
	거버넌스	35	1117.26	350.425	59.233	668	2194
	합계	550	966.29	312.018	13.304	5	2643
최근 2년간 인용수	기타	467	1.62	1.973	.091	0	11
	신공공관리	48	4.19	3.220	.465	0	14
	거버넌스	35	3.86	3.482	.589	0	12
	합계	550	1.99	2.388	.102	0	14
총인용 수	기타	467	4.15	5.078	.235	0	33
	신공공관리	48	9.75	6.721	.970	0	26
	거버넌스	35	9.94	10.166	1.718	0	39
	합계	550	5.00	6.026	.257	0	39

<표 5>에 따르면 조회수에 있어서 신공공관리 관련 논문은 평균적으로 약 1,238번을 조회하였고 거버넌스의 경우 1,117을, 기타 주제의 경우 927번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용수의 경우 거버넌스가 9.94번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신공공관리는 9.75번, 기타는 4.15번 인용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문분야에 따른 논문의 소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둘째, 각 학문 분야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6> Scheffe 다중 비교(사후검정)

종속변수	(I)논문성격	(J)논문성격	평균차이(I-J)	표준오차	p-값
조회수	기타	신공공관리	-311.323(*)	45.077	.000
		거버넌스	-190.246(*)	52.118	.001
	신공공관리	기타	311.323(*)	45.077	.000
		거버넌스	121.076	66.102	.188
	거버넌스	기타	190.246(*)	52.118	.001
		신공공관리	-121.076	66.102	.188
최근2년 인용수	기타	신공공관리	-2.564(*)	.338	.000
		거버넌스	-2.234(*)	.390	.000
	신공공관리	기타	2.564(*)	.338	.000
		거버넌스	.330	.495	.800
	거버넌스	기타	2.234(*)	.390	.000

16) F 검증결과 세 개의 종속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조회 수는 F값 28.666(p=.000), 최근 2년간 인용수는 F값 42.0(p=.000), 총인용수의 F값은 35.305(p=.000)이다.

		신공공관리	-.330	.495	.800
총인용수	기타	신공공관리	-5.604(*)	.861	.000
		거버넌스	-5.797(*)	.996	.000
	신공공관리	기타	5.604(*)	.861	.000
		거버넌스	-.193	1.263	.988
거버넌스	기타	기타	5.797(*)	.996	.000
		신공공관리	.193	1.263	.988

주: *p<0.01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조회수, 최근 2년간 인용수, 총인용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관련 논문은 기타 주제 논문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첫 번째 가설인 “행정학 학문공동체는 특정 시기에 있어 정부의 주요관심사 및 활동을 반영하는 연구들에 대한 소비가 높다”는 채택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21세기 초반 한국정부가 제시하였던 정부개혁이라는 시대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술연구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이러한 논문들을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한 주요활동에 대하여 생산·소비 양측면에서 모두 높은 대응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행정학이 단순히 유행을 쫓아가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관련 논문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논문을 많이 소비함으로써 양방향적 학문 의사소통을 이루었고, 이는 행정학의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해석된다.

3. 논문 저자의 사회적, 학문적 명망이 논문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두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종속변수로 초기인용회수(발간된 후 2년 이내 인용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분석결과이다.

<표 7> 회귀분석 결과¹⁷⁾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t-통계량	p-값
(상수)*	1.088	0.600	1.816	0.070
학부점수	-0.119	0.083	-1.439	0.151
최종학위대점수	-0.022	0.065	-0.342	0.732
현재소속기관점수	-0.015	0.079	-0.196	0.845
직위점수*	0.338	0.193	1.751	0.081
총실적**	0.035	0.015	2.335	0.020

주: * p<0.1, ** p<0.05

논문 저자의 사회적, 학문적 명망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독립변수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변수, 즉 총실적은 0.05수준에서, 직위점수는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학부점수의 경우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유의확률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나왔다. 그러나 최종학위대학 점수와 현재소속기관 점수는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결과가 나왔다.

첫째, 학부점수, 최종학위출신 점수, 그리고 저자의 현재소속이 통계적으로 의미없다는 것은 논문을 저술한 저자가 명망있는 대학의 학부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저자가 명망있는 대학의 교수라는 것이 초기 논문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 또는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결정이 적어도 행정학 학술논문의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2.534(p=0.028)로 0.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값(0.158)과 R²값(0.025)은 상당히 낮게 나왔다. 따라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중회귀모형의 통계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다중공선성, 자기상관, 동분산 가정에 대한 사후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차한계(tolerance)값이 모두 상당히 높기 때문에(0.83에서 0.92)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소속기관 점수와 직위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고(0.489: 표 2 참조) 현재소속기관점수, 직위점수의 공차한계값이 상대적으로 작게(각 0.66, 0.78)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둘째, 자기상관도 없거나 판별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며(독립변수가 3개이며, 관찰치가 200개 이상일 때 Durbin-Watson의 임계치는 0.01수준에서 1.623 1.725인데, 본 모형의 Durbi-Watson값은 1.838임), 마지막으로 잔차의 정규분포 산포도에서 잔차의 형태가 대각선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잔차가 정규분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의 표준화된 잔차와 표준화된 예측치 사이의 산포도 역시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분산 가정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18) Stepwise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실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나온다. 즉 엄밀하게 보았을 때는 총실적만이 최근인용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다.

그러나 논문저자의 직위는 초기 논문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이 0.1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유의미한 결과로서 일정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이를 해석하면 논문이 출간된 초기에 행정학 논문의 소비자는 학문세계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진학자들의 논문보다는,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검증된 학자들의 논문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논문 저자의 충실적 저자가 과거 논문 생산성이 높았는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즉 다른 사회적 명망을 나타내는 변수와는 다른, 저자의 학술적 명망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행정학 논문을 소비하는데 있어, 다른 변수보다 논문저자의 학술적 명망이 양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논문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논문을 소비하기 전에 논문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다른 사회적, 정치적 출신 또는 지위보다 오히려 저자의 학술적 명망도를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충실적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연구 지원비를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한동성외, 2008). 즉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논문생산의 순환구조에 있어 많은 연구지원금을 받은 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생산하며, 다시 자신들의 논문을 재소비하여 더욱 높은 학문적 명성을 추구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¹⁹⁾.

결론적으로 행정학 논문의 초기소비에 있어 저자의 출신 및 현재 소속 기관 지위 등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영향이 없는 반면, 저자의 학술적 명망에 관련된 변수가 논문의 초기소비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인 “논문 저자의 사회적 특성이 논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각될 수 있으나, “학문적으로 명망이 높은 저자가 저술한 논문이 더 많이 소비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에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 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1번 이상 인용된 논문 중(총 454건) 저자가 자기논문을 한 번도 다시 인용하지 않은 경우가 330건(72.7%), 자신의 논문을 1번 이상 인용한 경우가 124건(17.3%)이었다. 124건의 논문 중 14건은 모든 인용이 자신의 인용에 의한 것이었다.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학자와 그렇지 않은 학자들 간의 연구성과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자기인용 유무에 따른 저자의 사회적·학문적 특성 차이에 대한 t-검정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충실적*	자기인용이 없는 논문	330	12.1571	9.24075	.50869
	자기인용이 된 논문	124	15.8282	8.45847	.75959

주: *동분산이 가정된 상태에서 $p<0.01$

분석결과, 자기의 논문을 본인의 다른 논문에 인용한 학자들이 다른 논문저자들과 비교하여 높은 실적을 보였다는 것은 논문생산의 순환구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성별에 따른 학술논문 소비 차이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마틸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8>은 학술논문 소비에 관한 종속변수인 조회수와 총인용수가 성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기술통계값을 나타낸다. 먼저 총 540개의 논문 중 저자가 남성인 논문은 497(92%), 여성이 저자인 논문은 43개(8%)로 절대 다수의 논문이 남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8> 성별에 따른 학술논문 소비 차이에 대한 t-검정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조회수	여자	43	898.60	256.861	39.171
	남자	497	973.60	316.990	14.219
총인용수*	여자	43	3.23	3.484	.531
	남자	497	5.20	6.209	.279

주: *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p<0.01$

두 개의 종속변수 모두에서 남성이 저자인 논문이 더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회수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한 결과 총인용수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성과 여성의 논문의 소비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인 “여성이 쓴 논문의 소비에 있어서 과소소비가 발생할 것이다”는 논문의 질적 소비를 나타내는 인용수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양적 소비를 나타내는 조회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생산한 논문에 대한 과소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과소소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학 학술 논문의 소비에 있어 논문의 질 이외에 체계적으로 논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20) 실제로 여성의 논문의 질이 낮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으나, 여성의 논문의 질 자체가 높고 낮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첫째, 2000년대 정부운영의 기본철학이자 행정개혁에 기본이 되었던 신공공 관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양이 생산되었으며, 소비에 있어서는 다른 연구주제들과 비교하여 매우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학 학문공동체는 학술논문 소비에 있어 건강한 학술공동체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벌을 대표하는 저자의 출신 학부, 대학원, 또는 현재 소속 대학교 등은 초기 논문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저자의 학문적 명망을 나타내는 저자의 충실적, 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직까지는 여성 행정학자들에 대한 과소평가 경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현재 한국의 행정학 학문세계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동시에 비추어주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은 더욱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모습은 지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긍정적인 방향을 건설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필요에 대응하는 행정학의 적실성을 행정학 학문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상과 이론과 기술을 행정학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박순애, 2007: 324)라고 표현되는 행정학의 적실성을 더욱 함양하기 위해서 행정학 학문공동체는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학문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 학력에 의존한 가치판단은 더욱 줄여나가야 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연구자의 학문적 능력이 주요한 학술논문, 그리고 더 나아가 학자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행정학이 다른 사회과학학문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있는 학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행정학 학문공동체에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학문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논의되었듯이 여성, 남성이라는 차이가 아닌 논문의 질, 즉 학자의 학문적 능력에 의해 공정히 평가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인문·사회과학편), 47(1): 281-325.
-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 김경만. (1994). 과학지식사회학이란 무엇인가. 「계간 과학사상」, 가을호: 132-154.
- 김동훈. (2001).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문고.
- 김선명. (2005). 공공부문 혁신의 접근방법에 관한 인식론적 비평: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4): 1-18.
- 김재훈. (2008). 행정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42(4): 35-68.
- 김용학·윤정로·조혜선·김영진. (2007). 과학기술 공동연구의 연결망 구조: 좁은 세상과 위치효과. 「한국사회학」, 41(4): 68-103.
- 김정숙·김경근. (2003). 교수노동시장에서 여성 박사들의 경험과 현상타개 전략. 「교육 사회학연구」, 13(3): 21-44.
- 김홍렬. (2005). 국내 의학학술지 참고문헌 기술규정의 상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6(2): 141-163.
- 남궁근·김태일. (2003). 학술연구비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연구비 지원 방식과 연구결과물 수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2): 163-184.
- 박순애. (2007). 행정학 연구분야의 시대적 적실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1(3): 321-344.
- 박치성. (2008). 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사회적 적실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행정학에 대한 사회 수요적 접근. 「한국행정연구」, 17(3): 3-32.
- 박치성·고길곤. (2009). 인터넷 공간에서 행정학 지식의 수요와 공급: 지식 공유체 비극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43(2): 201-225.
- 박홍식. (2006). 학술연구 발표(1956-2006)의 성향: 내용과 변화의 추이. 「한국행정학 오십년」, 593-616. 한국행정학회.
- 배응환. (2000).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정부와 이익집단 관계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34(4): 83-102.
- 송희준. (2008). 공공난제 해결을 위한 행정학지식의 활용방향. 「한국행정학보」, 42(4): 69-94.
- 신무섭. (1997). 한국행정학보를 통해 본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전북대학교)」, 23: 87-108.
- 오철호. (2008). 행정학 연구결과 활용의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학보」, 42(4): 7-34.
- 이가종·윤석경. (1996). 학술지 인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0(2): 97-112.
- 이명석. (2001).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이재은. (2003). 신공공관리론과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현대사회와 행정」, 13(2): 135-154.
- 이종수·윤영진외. (2008). 「새행정학」. 5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 이종오. (2000). 한국의 지역주의 정치문화. 2000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 발표문 요약집. 73-76.
- 임도빈. (2008). 곁도는 행정학 바로잡기-행위론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2008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4): 235-60.
- 임도빈. (2007). 정부조직진단 사업의 조직사회학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1(4): 89-112.
- 임도빈. (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 38(1): 51-72.
- 임도빈. (1998). '행정사회학' 연구의 방향. 「사회과학연구」, 9: 365-376.
- 주상현. (2002). 한국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39-55.
- 한동성·장덕희·한승환·양정모. (2008).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대학 연구자의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42(4): 265-290.
- 한인숙. (2008). 특별편집인의 서문: 행정학 연구결과의 활용. 「한국행정학보」, 42(4): 1-6.
- 홍준형. (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7(1): 93-110.
- Blissett, M. (1972). *Politics in Science*. Boston: Little, Brown.
- Cole, S. (1992). *Making Science: Between Nature and Socie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 S. (1995). Some Problems of the Discipline: Note from the Editor. *Sociological Forum*, 10(3): 353-360.
- Cole, S. (2004). Merton's Contribution to the Sociology of 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34(6): 829-844.
- Cole, J.R. & Cole, S. (1973). *Social Stratification in Scienc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llins, R. (1975). *Conflict Soci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Coser, Lewis A. (1977).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Ideas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2nd e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신용하역. 사회사상사. 시그마프레스, 2003.
- Diesing, P. (1991). *How Does Social Science Work?: Reflections on Practice*.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Garfield, E. (1979). Is Citation Analysis A Legitimate Evaluation Tool?

- Scientometrics*, 1(4): 359-375.
- Hagstrom, W. (1965). *The Scientific Community*. New York: Basic Books.
- Knorr-Cetina, K. (1981). *The Manufacture of Knowledge*. Oxford: Pergamon.
- Latour, B., & Woolgar, S. (1979). *Laboratory Lif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 Beverly Hills, CA: Sage.
- McCoy, Elaine. (1992). The Management of Public Provision.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1(4): 420-434.
- Merton, R. K. (1968). The Matthew Effect in Science. *Science*, 159(5): 56-63.
- O'Leavy, V.E. & Mitchell, J.M. (1990). Women Connecting with Women: Network and Mentors. In S.S. Lie & V.E. O'Leavy. (eds). *Storming the Tower: Women in the Academic World*. London: Kogan Page.
- Rossiter, M. The Matthew Matilda Effect in 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23(2): 325-341.
- Shapiro, C. & Varian, H.R. (1999).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Boston, Massachusett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Streib, G. & Christine, R. (2005). Strengthening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Identifying Boundaries and Horiz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8(1-2): 37-56.
- West, J. & Lyon, K. (1995). The Trouble with Equal Opportunities: The Case of Women Academics. *Gender and Education*, 7(1): 51-68.

Abstract

Consumption Patterns of Academic Papers in Public Administration

Chisung Park·Kyunghoon Kim

This study focuses on what influences the consumption of academic papers apart from the quality of the paper. Applying discussions from the science of sociology, this study proposes three variables which are expected to influence paper consumption. First, prominent perspectives during the early 2000s, new public management and new governanc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paper consumption. Second, while the academic eminence of the author makes an impact on paper consumption, the social status of the author has no significant impact. Third, academic papers written by women are underconsumed compared to those by men. The results provide the public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of with good news as well as bad news. The good news is that the PA academic community is sound in that 1) PA scholars are very keen to the current PA paradigm, and 2) they consider academic performance of the author as a key factor in choosing to read and/or cite, rather than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author. However, the bad news is that gender discrimination still exists in academic society.

【Key words: Consumption patterns of academic papers, Public Administration,
Sociology of science】